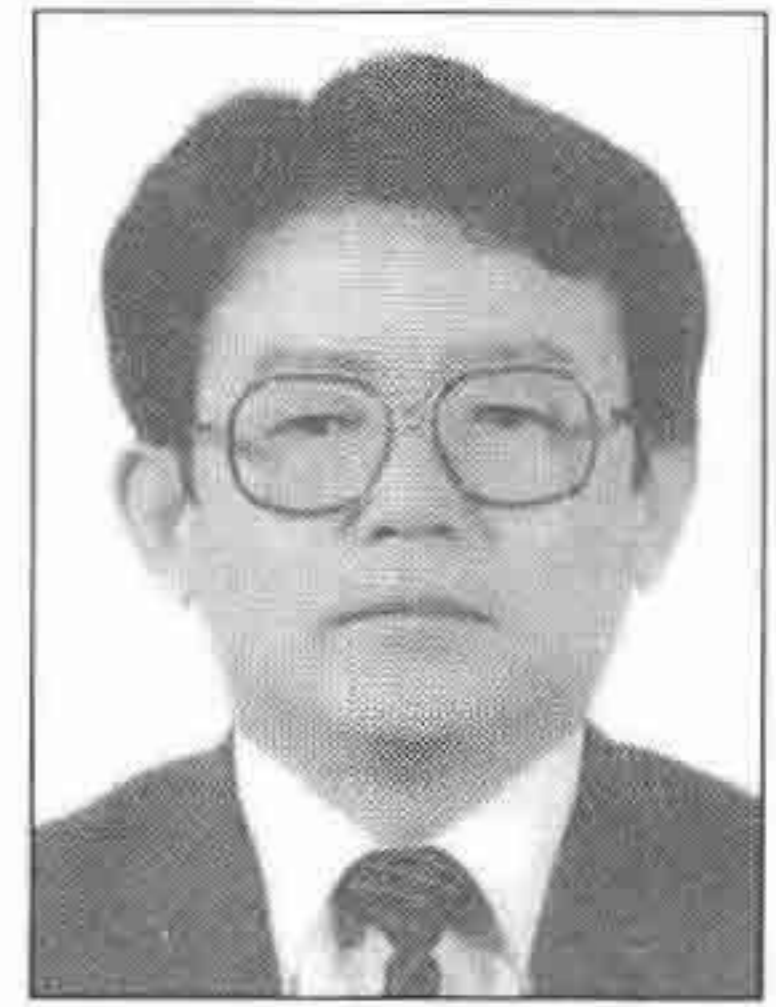


스승의날 5월 15일, 그래서 울었습니다.



김종오 부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5월 15일 스승의 날이다.

초·중·고·대학 등 20년 가까운 세월을 나에게 교육이란 이름으로 가르침을 주셨던 그 많은 은사님들, 그러나 그 어른들께 나는 고마움도 잊은 채 사회생활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찌들대로 찌든 채 그럭저럭 살아왔다. 그러는 사이 나도 벌써 고희(古稀)라는 문턱에 이르고 말았으니 되돌아보아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허송세월이었다.

새벽 일찍, 스승의 날이랍시고 불민하고 무딘 감성이나마 내 개인적으로는 필생의 은사님으로 높이 모시고 있었던 어른께 전화를 드렸다. 그러나 불통이었다. 그러기를 오전 내내 수십 차례나 통화를 시도했으나 역시 불통이었다. 할 수 없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훈처를 찾았다. 그 은사의 이름을 검색해보니 수십 개가 뜨고 있었다.

그 가운데 그 어른의 92번째 생신 날 보훈처 간부가 생일선물을 드리려고 찾아뵈었다는 글이 뜨고 있었다. 나는 그 담당관과의 통화에서 그 은사님의 바뀌진 새 전화번호를 확인하고는 대전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내 내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모님(安貞愛 / 赤字人)은 서울을 떠나 대전 근교의 어느 병원에 계신

다는 등 여러 정황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끝으로 결별선언을 하듯 내게 간곡히 당부하시기를, 「김종오 씨, 우리 영감님에 대한 김종오 씨의 각별한 정감이며, 그 존경심의 경지를 내가 왜 모르겠소 마는 이제는 잊어 주세요. 그 고귀한 존경심을 훼손시키지 않고 아름답게 간직하기 위해서도 이젠 잊어 주세요. 지금 우리 영감님의 노추한 모습을 김종오 씨에겐 절대 보여 드리고 싶지가 않아서입니다. 부디 안녕히…」

목이메인 사모님의 말씀에 난 몸부림치듯 흐느끼면서 “안됩니다. 저 오늘 당장 내려 가겠습니다”고 호소했으나 기어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다.

내 필생의 은사 조일문(趙一文) 박사!

1917년생이니 우리 나이로는 벌써 아흔셋이다. 그 어른은 중국 남경대학 재학시절 철기 이범석(鐵驥 / 李範奭) 장군이 지휘하던 한국광복군 제2지대의 청년장교로서 광복투쟁을 몸소 하셨고, 광복 후에는 백범 김구(白帆 / 金九) 선생의 비서로서 또 한국독립당의 선전부장으로 소위 1949년 평양에서

의 남북협상 때는 김구 선생을 수행하여 대변인으로 활동하셨다.

그리고 그 통한의 백범 김구 서거(逝去) 이후엔 대학에서 교수, 학장, 총장, 재단이사장으로 교육계에 계시다가 그 후 국회의원, 독립기념관 이사장 등을 두루 역임하셨고, 은퇴하시고는 저술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수백 점의 희귀한 수석(壽石) 작품을 전시하여 그 수익금을 노령의 가난한 광복군 동료들에게 나눠 주시는 등 베푸시는 삶을 영위해 오셨다.

내가 대학 재학당시 대학신문의 기자로서 주간(主幹) 교수이셨던 그 은사님께 홀리다시피 반해 번린 것은 망국의 청년으로 만리타국에서 광복운동을 하셨다 거나, 광복 후의 건국운동을 하시는 와중에서도 나라 글인 '한글'을 토씨 하나, 띄어쓰기 하나도 허점이 없으셨고, 그 논자나 문장력의 수려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서였다. 그러면서 그 은사님과 학연(學緣)이 반세기나 되는 세월을 쌓아가고 있었다.

은사님은 평소 스스로를 들푼이라 하셨고 또 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셨지만 그 고고한 선비정신은 정말 대나무 같으셨고 낙락장송에 비견됐다. 내가 국회 수뇌부에서 공보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임자, 내일이 추석인데, 대통령도 나에게 선물을 보내오는데, 임자는 뭇 좀 들어온 게 없어? 그래 나에게겐 아무것도 없냐 말이야!”

“네, 총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내가 지레 짐작으로 안다 함은 동료의원이나 후배의원 그리고 제자(弟子)의원 들에게 늘 추석 인사장을 쓰셨던 은사님이셨기에 또 그 예의 인사장 부탁일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무엇인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감지되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임자, 내가 오늘 화가 좀 났는데, 임자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런 무례한 선물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통고해 줘!”

내용인 즉,

추석이라고 해서 애국지사들께 대통령이 추석선물을 보내 주는 전례(典禮)가 있었던 모양인데, 전두환 대통령 집권 시에는 예의를 제대로 갖춰서 해 오더니 노태우 대통령 때의 후반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인 바, 바로 추석 전날인 오늘, 전화벨이 울리기에 받아봤더니 어느 남성이 목에 힘을 약간 주고는

“거기 조일문씨 계십니까?”

“네 그렇소, 내가 조일문이오.”

“저..., 지금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동회로 나오시오.”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느닷없이 도장가지고 동회로 나오라니?”

“청와대에서 추석선물이 왔으니 찾아가란 말입니다.”

“아..., 그렇소이까? 그렇다면 나는 그런 선물은 안 받겠소!”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그 예의 남성 동직원은 또 전화를 걸어와 ‘대통령의 선물을 거절하면 큰 일 난다’면서 받아가라는 독촉이 이어졌단다. 그래서 은사님은 ‘그따위 전화는 당장 그만두라’고 호통을 쳤음은 물론 이 얘기를 제자인 나에게 해 온 것이다.

나는 이 어른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직감하고는 바로 의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해 드린 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례한 의전으로 원로 애국지사께서 크게 분노하고 계시더라’는 위의 내용을 통보했다. 그 뒷얘기는 불문가지리라.

그런 후, 추석날 오후에 은사님 댁에 들렀더니 그 얘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마침 나에게 먹어보라던 그 한과(漢菓)가 청와대의 추석 선물이었다면

서 보훈처 담당관과 구청장이 풀이 죽은 동장까지 대동해 와서는 '원로 애국지사님께 불경했음' 을 옹드려 빌더란다. '어제 김군에게 한 내 얘기가 금방 약발을 받았나 보다' 고 하시면서……

뒤에 알아 봤더니, 역시 내 짐작대로 시나리오가 전개돼 가고 있었다.

내 전화를 받은 청와대에선 바로 보훈처장에게, 보훈처는 서울시이다. 시에서는 해당 구청장에게 '애국지사 추석선물 전달경위 시말보고서' 까지 강요하기에 이르렀으니, '주민등록증에다 도장까지 가지고 동회로 나와서 인수해 가라' 던 그 말단 공무원이나 동장의 그 후 행보는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여기서 각설하고,

나는 때때로 말 잘하고 글 잘 쓰기로 명성이 높은 시스템공학자 지만원(池萬元) 박사로부터 그의 군살배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웅변조의 호소력 있는 연설에서, 또 그 정연한 이론의 물 흐르듯 하는 수려한 문장전개에서, 조일문 총장님의 언변이며 그 문재(文才)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는 총장님의 평소의 언행이 그러하셨고 또 그 많은 저서(내가 갖고 있는 것만도 30여권)에서도 티끌만한 흠결을 발견할 수 없어서였다. 정치학을 전공하신 학자셨지만, 어느 시인(詩人)이 또 어느 서예가(書藝家)가 이 어른의 경지에 이를 것인가 하고 혼자 감탄해 보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를 어찌랴!

그런 은사님께서도 세월의 무게를 도저히 버텨낼 수 없으셨으니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치매증상이 나타나 나신듯, 나를 보고는 '임자' 라거나 또는 '김군' 이라고 분명히 하시다가도 느닷없이 '당신은 누구냐, 왜 왔느냐?' 고 반문하시기를 여러 차례라 때로는 참으로 황당하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다.

그리하여 작년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의 철기

이범석 장군 추모 행사장에서는 족청(民族青年團)의 제자였던 서영훈 적십자사 총재, 김정례 보사부장관이 나에게 은사님의 안부를 각별하게 물어 오셨기에 '총장님은 알츠하이머 증세가 차츰 더해 가시는 듯 합니다' 고 전해 드린 바 있고, 그런 후에도 여러 차례 찾아 뵈온 터에, 이제 다시 사모님과의 통화에서 이를 재확인 했던 바, 이젠 식솔들도 몰라보실 정도라니, 아… 안타깝기도 할 사, 애달기도 할 사, 나는 진정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간절한 심정으로 두 손 모아 바랍옵기는,
은사님이시여!

당신께서 친히 작사(作詞)하신 건국대학교 교가(校歌) 3절의 각 머리 절에서

'다섯 바다 물을 길어 먹을 갈아라' 고 하시던

'여섯 물 고루고루 씨를 뿌려라' 고 하시던

'아홉 하늘 높은 곳에 뜻을 세워라' 고 하시던

오대양(五大洋) 육대주(六大洲) 아홉 하늘(九天)의 그 웅혼(雄渾)하고 원대한 청운의 뜻을 저희들 청년 대학생들에겐 그토록 가슴 저리게 강요해 두시고는 그까짓 알츠하이머를 왜 못 벗어 던지십니까?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중원 별을 누비시던 20대의 새파란 광복군장교의 해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게 그리도 어려우시다면,

대학 강단에서 열강(熱講)하시던 고고한 스승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마저 안되겠다고 짐작되시거든,

나라로부터 겨레로부터 존경받는 노령의 애국지사로 그렇게, 그렇게 돌아와 주십시오.

은사님! ㊦